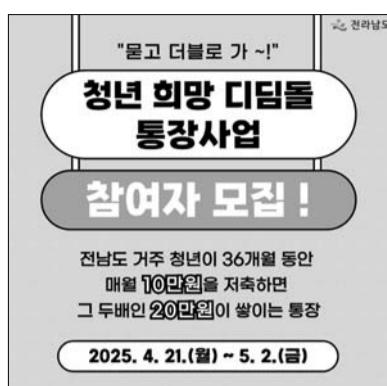


### 전남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신청하세요

내달 2일까지...중위소득 120%이하대상



전남도는 오는 5월 2일까지 '2025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의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고, 적격심사를 거쳐 7월 총 825명을 최종 선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도록 전남도와 청년이 함께 통장을 개설하고, 공동으로 자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

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자는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도와 시군이 지원금을 더해 만기 시 최대 720만원(원금의 2배)과 이자를 함께 수령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1980년부터 2007년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전남도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90일) 이상 근로한 경력 있는 노동자 또는 사업자여야 한다.

또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약 287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전남도나 각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 호 기자

### 광산구, 우산동 뉴빌리지사업 조성 공청회

오는 30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민 의견 수렴

광산구는 30일 오후 2시 우산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우산동 '뉴빌리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우산동 '뉴빌리지' 사업 시행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설명하고, 주민, 관계 전문가 등과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우산동 도시 재생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누구나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광산구는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도시 재생 전문가, 관계단체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실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해 광주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뉴빌리지사업 공모에 선정돼 민선 8기 단일사업으로 최대 규모인 98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광산구는 2029년까지 총 196억 원을 들여 학교 통학로 개선, 주민공동체 생활 기반 조성 등 우산동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동기 기자

### 서구,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48곳 지정

알레르기질환 아동 건강한 학교생활 지원



서구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48곳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로 지정하고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본격화한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는 아토피피부염, 천식, 비염 등 알레르기질환이 있는 아동이 학교와 보육기관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관리 사업으로 서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알레르기질환을 조기에 대응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서구는 23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안심학교로 지정된 기관의 보건·보육교사 5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와 강연 시간을 갖고 사업 취지와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교육에는 양형채 전남대병원 교수가 '알레르기질환의 이해와 관리'를 주제로 강연을 펼쳐 조기 치료와 면역 관리의 중요성을 알렸다.

서구는 ▲5월 교사 대상 전문교육(전남대병원) ▲5월까지 아동 대상 알레르기질환 심대조사 ▲6-7월 중 비염 관련 인형극 운영 ▲9월 예방관리 구연동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동들이 알레르기질환을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0월에는 안심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해 사업의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순주 기자

### 평두메습지 '주민 참여 생태 프로그램'

어린이 람사르습지 탐사대·시민과학생태학교 운영

북구가 지난해 광주에서 처음으로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평두메습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 환경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람사르습지 탐사대'와 '평두메습지 시민과학 생태학교'가 운영된다.

먼저 '어린이 람사르습지 탐사대'는 내달 13일까지 총 280여 명의 어린이가 탐사대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오는 26일과 다음 달 28일 두 차례 '평두메습지 시민과학 생태학교'가 운영된다.

이 사업은 참여자에게 평두메습지에 서식 중인 생물을 탐사 및 기록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실천 방향을 논의해 환경보전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탐사 활동은 대학교수,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가가 동행해 진행된다. 이동기 기자

# 군공항 소음피해 학교 6곳 지원책 마련

##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관련 법 개정 요구·학교 환경시설 개선 검토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군공항 소음피해를 겪는 학교들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지원청에 따르면 광산구와 서구지역 내 13개 학교가 직간접적 군공항 소음피해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중 군공항에 근접한 6개 학교는 전자기기·작업 과정에 발생하는 극심한 소음에 노출돼 있다. 이로 인해 수업 중단, 집중력 저하, 학습 결

손, 심리적 불안 등 학교 구성원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 군소음보상법 상 학교·유치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상 근거가 사실상 부재해 피해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원청은 소음피해학교 전수조사와 함께 군소음보상법 등 연관 법령의 개정, 최소한의 지원대책을 포함한 자치조례 제정, 소음 측정 기준 현

실화 등을 관계기관에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성능 방음창호·방음문·방음벽·흡음천장·공기정화시설 등 해당 학교 환경시설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학습 결손 학생 대상 보강수업, 소음 상황별 수업 운영 매뉴얼 개발, 전문 심리상담 지원, 치유 프로그램 등 교육적 측면의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군부대·교육청·지자체·지역

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도 계획하고 있다.

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법령의 개정 요구와 조례 제정 등 법적 지원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학교 환경 개선과 교육적 지원을 통해 학생·교직원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원청은 이날 오후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구의원·광산구 담당부서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공항 소음 피해 학교 지원 방안 마련 간담회를 가졌다. 조순주 기자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주세요"...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담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2일 담양읍 전통시장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위원 10여 명이 참여했으며, 복지위기가구 발굴 안내와 홍보 물품을 전달하고 이웃 주민들에게 위기가구 발굴에 동참을 부탁했다. 담양군 제공

### 전남, 피부 노출 최소화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4~11월 SFTS 예방위해 긴소매 옷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전남도는 진드기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맞아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등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 시 노출 최소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주로 4~11월 참진드기에 물린 후 감염되는 3급 감염병이다. 증상으로 진행되면 혈소판·백혈구 감소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조기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농작업과 제조작업, 산나물 채취

등 야외활동 증가로 진드기 노출 기회가 많아지는 경우 발생이 증가하며 감염자 대부분은 논·밭·캠핑·등산 등 야외활동을 하다 진드기에 노출된다.

진드기에 물린 후 2주 이내 고열, 구토, 설사, 복통 등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중추신경계 이상,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되므로 특히 고령자와 면역 저하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사람뿐

만 아니라 동물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풀숲 등 진드기에 물리는 환경에서 반려견 산책 시 주의해야 한다.

전남도는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 1억5000만 원을 확보해 도민 교육 및 예방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예방활동을 적극 강화하고 있다.

전남지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사망)는 2020년 8명(1명), 2021년 9명(2명), 2022년 14명(5명), 2023년 16명(7명), 2024년 8명(3명)이 발생했다. 김 호 기자

### 광주시 "광견병 예방접종 하고가게"...3820마리 선착순

내달 1~16일 5000원에 가능...반려견·반려묘 대상

광주시는 반려동물과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5월 1일부터 16일까지 불특정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접종 대상은 광주시 내 거주하고 있는 반려견·반려묘이다. 단, 임신 또는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이 안 될 수 있다.

접종을 희망하는 시민은 동물등록증 또는 동물등록장치(외장형·인식표)를 지참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

예방접종을 하면 된다. 광견병 예방접종 비용은 평소 2만원 내외이지만 이 기간에는 5000원만 내면 된다.

광주시는 백신 3820마리 분량을 지정 동물병원 85곳에 지원한다. 지정 동물병원 현황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과 120콜센터(062-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견병은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매년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고 광견병 예방에 따른 시



민들의 불안감을 줄이며, 사람과 동물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김도기 기자

### 전남,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생필품·의약품 지원

(사)희망을 나누는사람·전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 협력

전라남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생필품 및 의약품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4월에는 (사)희망을 나누는사람들에서 생필품, 8월에는 전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에서 의약품이 각각 제공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생필품 1100세트(6400만 원 상당), 의약품 500세트

(1000만 원 상당)로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품목으로 구성됐다.

생필품은 샴푸, 비누, 치약, 칫솔, 세제 등이, 의약품은 소화제, 진통제, 감기약, 구충제, 알러지약 등이 포함됐다.

특히 물품 운송과 배분 작업에 동신대학교 학생 30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나눔의 가치를 직접 실천한다. 김 호 기자

물품 지원은 2025년 전담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약 1600명을 대상으로, 전남도의사회가 공급하면 시군에서 수령해 계절근로자에게 직접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기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호 기자

### 순천국유림, 국유림 대부지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오는 11월까지 관내 대부지 72건, 무단점유지 59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경고' 등의 판정을 받은 부실 대부지는 더욱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부 등의 취소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무단점유지는 적법한 허가 없이 무단으로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위법행위로서, 이번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일부 점유지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적극 정리를 계획하고 있다.

신하철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무단점유자는 속히 국유림 훼손 및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를 원상복구 등으로 정리를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순천=조순익 기자

### 광양시, 영업용 여객·화물차 밤샘주차 집중 단속 실시

광양시는 주차 환경 개선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영업용 여객·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영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는 본인 소유 차고지나 공영차고지 등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주거밀집지역 주변 공한지나 주요 도로변에 무단으로 밤샘주차한 차량이 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소음공해 등 시민 생활환경을 침해하고 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을 초래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차 사전 계도 기간 동안 총 97대를 적발했으며, 앞으로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3개조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여객·화물자동차다.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운행정지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밤샘주차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운수 종사자들께서는 초남·육곡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 등 지정 시설을 적극 이용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양=조순익 기자